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에피미아 대순교자 / 7월 11일

마태오 제5주일

성 뵤그라띠오스 주교순교자

제4조 / 조과복음 5

성 요한 크리스소스툼 성찬예배에서

- 제4조 찬양송 / 82, A 214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 85, A 226
- 사도경 : 로마 10, 1-10 / 봉독서 154
- 복음경 : 마태오 8, 28-9, 1 / 110, B 39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 뵤르피리오스의 지혜로운 말씀
“하느님은 우리를 매우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어느 여름날 오후 성인께서는 소나무 아래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섭리를 무한히 신뢰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도 알고 계신다.’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그 어떤 일도 우연인 것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도 보살펴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홀로 있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절대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매 순간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십니다.

그러니 이것을 깨닫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안됩니다! 남을 비난하시면’

시리아의 이삭 성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범하기 쉬우면서도, 죄책감을 별로 느끼지 않는 ‘남 말하기’에 대해 준엄하면서도 교훈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성인의 인도로 우리의 영성 생활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웃을 비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선을 베풀지 않았다는 것이 비난의 이유입니다. 물론 자선은 필요한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실천해야 할 덕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선이나 또 다른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남을 비난하는 죄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사랑의 결실을 거둘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 후에 다른 미덕을 갖추기를 바라십니다. 만약 내가 금식을 한답시고 고기는 먹지 않으면서, 형제를 비난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금식은 하느님께서 받아들이지도 않으실 뿐더러, 외면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관심 때문이라며 신상 문제나 하는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비난하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엇나가려 하는 자신의 영혼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를 위해서는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 다른 이들의 잘못을 감시하고 비난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판단하는 것은 하느님의 몫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제 눈 속에 들어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

라. 그래야 눈이 잘 보여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지 않겠느냐?”(마태오 7,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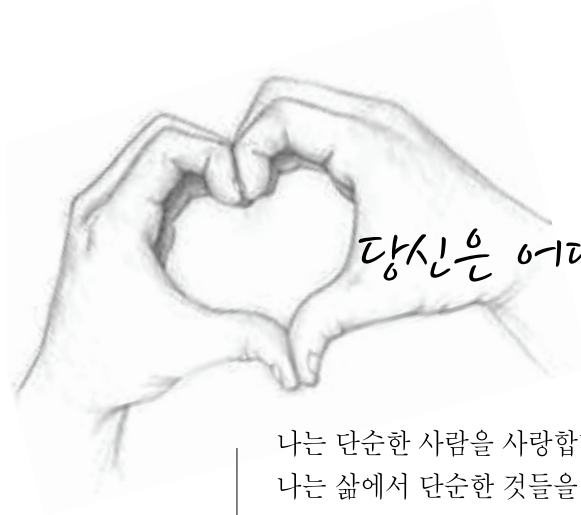
만약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비판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큰 희생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교부들은 우리를 일깨워줍니다. “금식하고 또 회개하는 의미로 끊임없이 절을 하여 그대의 등이 휘어진다고 해도, 만약 마음 속에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구원은 그대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오직 자신의 잘못만을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하시고 또 마음 속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의 영혼은 파도가 이는 바다와 흡사합니다. 사탄이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 그는 편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판을 즐기는 사람을 하느님께서는 엄하게 벌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전혀 하시지 않았던 행동을 그들은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 심판하러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다른 이를 판단하고 비난합니까? 그런 우리가 너무 비참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너무 가난합니다. 우리의 성찰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멘

▶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



당신은 어떤 것을 사랑하나요?

나는 단순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는 삶에서 단순한 것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단순한 기쁨을 사랑합니다...

나는 매일 경험하는 작지만 놀라운 일들을 사랑합니다...

나의 하루를 아름답게 하는 데는 작은 웃음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꽃 한 송이, 꽃잎 하나, 파도에 차가워진 바닷가의 조약돌 하나만으로도...

밝고 빛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은 우리 안에, 우리 주위에 수없이 많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마치 전투에 나가는 전사처럼, 이 세상의 온갖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듯이 지식과 기발한 생각들과 딱딱하고 고지식한 논리로 중무장한 채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윽고 우리의 하루는 거칠고 가혹하게 되며, 밤은 악몽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하루를 행복한 기분으로 시작하고, 밤이 되어서는 기쁨과 평화의 빛을 지닌 채 집으로 돌아오는 이들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마태오 5,3)

▶ 아타나시아



소 식

대교구

■ 신데즈모스 수련회 ▷ 올해 여름 신데즈모스 수련회를 7월 21일(금)~23일(일)까지 춘천 성 보리스 성당 사회복지관에서 특히, 오늘날 청년들의 영적 삶에 있어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있을 예정입니다. 신데즈모스 회원께서는 모두 참여해주시고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성당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는 5만 원입니다.

■ 여름 수련회(English Camp) ▷ 올해 춘천에서 있을 여름 수련회(English Camp)가 다음의 주제와 일정으로 개최됩니다.

- 주제 / ‘하느님 나라의 아이들’
- 초등부 / 7월 29일(토)~8월 4일(금)까지, 회비 : 15만 원
- 중·고등부 / 8월 4일(금)~8월 6일(일)까지, 회비 : 5만 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유익하고 영적인 시간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합시다. 수련회는 정교회에서 세례 받은 아이들만이 아닌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친구와 같이 참여하면 정교회의 유익한 가르침을 전달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7월 16일까지 각 성당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원히 기억하시리이다 ▷ 그리스 아기온 오로스에서 1991년부터 1993년까지 한국에 오셔서 서울 성당과 부산 성당의 사목을 도와주셨던 소프로니오스 그라바니스 대신부께서 지난 7월 10일 안식하셨습니다. 한국에 머무시면서 한국정교회의 선교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신부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느님 안에서 영혼의 안식을 기원합니다. 영원히 기억하시리이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출판 기념회 ▷ 지난 7월 4일(화)에 사회평론 출판사에서 출판한 ‘난생 처음 한 번 공부하는 미술 이야기’라는 책의 출판 기념회가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 있었습니다. 이 책에는 정교회의 예술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고, 특히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 대한 소개와 사진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성당에 출판 기념회를 요청하였고 대주교님의 승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날에 주교청 홀에서는 저자의 책 소개가 있었고, 이어서 성당에서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께서 성화를 설명해주셨습니다.

부산 성모 희보 성당

■ 여름 수련회 ▷ 7월 28일(금)~30일(일) 동안 유·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을 것입니다. 회비는 3만 원입니다.

8월 13일(일)~15일(화) 동안 청년회 수련회가 있을 것입니다. 회비는 3만 원입니다.